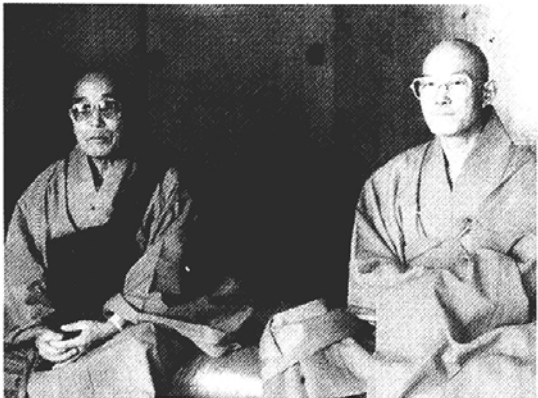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준비하며 금생에 최선



사진을 찍지 않는 스님은 소중하고 있는 사진이 거의 없다. 이 사진은 8~9년 전 한 사찰 부처님집안 법회에서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사진 왼쪽)과 지리한 것을 한 신도가 찍은 것이다.

교인 천명의 역량을 내신다는 뜻입니다. 먹물웃을 입고 계 받는 스님들이 해탈하면 사회에 베푸는 공덕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인류 중생들로 하여금 당신이 닦아놓은 탄탄한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셨듯이 말입니다. 그 길따라 가는 중생들은 부처님과 같이 고통을 여의고 해탈의 문으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부처님 한 분이 한량 없는 중생들에게 세세생생 복덕을 구족케 하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세속 나이로도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았지만 내 자신이 아직 성불하지 못했는데, 그저 불교를 조금 안다는 것 만으로 함부로 안다소리 하는 것은 사실 무거운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법 제자들을 만나고 대중

사람몸 받은 금생에 깨달아야죠
다음생을 무엇으로 보장해요
성불의 원 세워 믿고 의지하여
참선하고 영불하고 자비행 펴세요

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체의 원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기 밖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밖에 참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자기 자기 마음, 근본 마음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입니다. 그 마음자리는 모든 인간이 공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불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자비심이 짙로 우리나라와 서로 존경하고 부처님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자리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라 하는 것도 바로 이 부처의 마음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그 부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중생이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근본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근본의 부처님 자리에서 답을 뽑아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거기에 접근해야 합니다. 즉 효리고 여덟고 분별된 망아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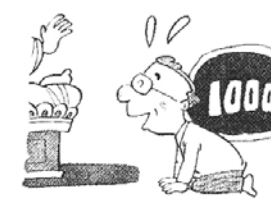
마음먹기 달랐다고 가르치셨거든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쌓인 업장이 두텁습니다. 우리는 마음먹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업장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된, 그래서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호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삽니다. 각자 얼굴은 각자의 행위와 생각의 소산입니다. 착한 생각과 행위에 의해 착한 얼굴이 나오고, 악하고 사나운 행위와 생각에 의하여 나쁜 얼굴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지난 업의 행위로 인하여 가난한 얼굴도 출세하는 얼굴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착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얼굴로 변해가고 그렇지 않고 남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사람은 나쁜 얼굴로 변해갑니다. 얼굴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숙일 수도 없고 그 마음의 결과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도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몸으로 입으로 쌓은 업장을 이겨내야 하는 것 그것이 담면과제의 하나입니다. 이 숙제는 결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선하고 영불하고 수없이 절하고 독경하고 자비보살행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방향은 불자의 본분인 조상과 나라와 불교, 그리고 사회를 위하는 일을 다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나 하나만의 자유는 방종입니다.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전 인류 차원의 자유와 담아야 할 때, 그때 진실된 자유가 되는 게지요. 지금 우리는 지나친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고 부의 축적을 도모하고 있지나 않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나 하나만의 안전과 복락만을 위해서 마침내 전체가 파국에 직면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지탱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탐욕스런 자기모순에서 벗어나 배 비로소 전체가 자유와 복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 안의 부처자리를 믿고 동체대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위영란 기자 (ryyui@buddhapia.com)



나는 매년 한번씩 일정한 기간을 정해 백일기도를 올린다. 일년 365일 가운데 백일동안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한 삶을 영위하려고 한다. 이 기간동안 말, 생각, 행동 등을 단속하려고 특히 신경을 쓴다. 매일 아침에 올리는 번식, 예불, 백팔배,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 하는 백일간의 참회기도 등 두가지가 평소 수행의 큰 줄기인 셈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2년전엔 하루 천배씩, 백일동안 십만배 올리기를 한 적이 있다. 늦어도 아침 6시 반엔 집을 나서야 하는 직장인으로서 시간에 쫓기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다. 천배를 두번으로 나눠 아침에 6백배, 나머지 4백배를 저녁에 올리기로 시간표를 짰다. 내 체력으로 백팔배를 하는데 약 15분이 소요된다. 번식 예불 봉행에 이어 한시간 반에 걸쳐 6백배를 하고 출근하려면 새벽 3시부터

십만배 하니 몸과 의식 큰 변화
"수행을 한가한 일로 생각 말자"

서둘러야 했다. 퇴근이 늦어져 저녁에 해야 할 나머지 4백배를 마치지 못하는 날엔 고생이 더욱 심했다. 다음 날 해야 할 천배와 전날 끝내지 못한 4백배를 합해 모두 천 4백배를 하루에 마쳐야 했기 때문이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당초 결심대로 십만배를 마쳤다. 늦은 밤에 시작했는데 끝내고 보니 어느새 가을이 와 있었다. 그 해 여름 한 철은 절만 하다가 보낸 듯하다. 십만배를 마치고 난 이후 나는 여러 면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몸과 의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 만성적인 두통, 소화불량, 불규칙했던 심장박동 등이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다. 웬만한 질병은 절로써 완쾌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한시간 이상 절을 계속할 때 심매에 드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속아나는 팔과 함께 빠져나오지 않을 인체내 독소는 별로 없을 것이다. 무아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열심히 절을 해서 암(癌)을 고



현대는 프로의 시대이다. 우리 불교에도 프로정신이 도입돼 불자들이 내면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을 스스로 도출해 내도록 힘써야 한다. 대다수의 불자들이 가진 아마추어리즘, 다시 말해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나약한 수행자세로는 업(業)에 예속된 삶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부가가치는 경제활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능력 개발, 의식의 확대 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철저하게 수행하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삶의 기쁨을 높여주는 '마음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IMF고통의 극복은 물론, 지식산업, 첨단산업 등이 주도할 21세기 도래에 대비하여 우리 불자들도 이제는 프로정신이 돼야 한다. 깊이 간직돼 있는 지혜의 힘을 발굴해 내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행을 한 가한 일로 생각 말자. 프로정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 기량을 연마하듯이 불자들에게도 몸과 마음을 던져 수행 정도로 열심히 절을 해서 암(癌)을 고

“육신의 욕심 좇으면 업장만 두텁게 할 뿐”
몸은 달라도 마음 하나되면 위기극복

법문을 하는 것은 내가 뭘 알아서가 아닙니다. 내 원(願)이 다른 스님들이 다 성불해도 나는 지옥고에서 해매고 있는 중생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다 비고 없을 때 그때 성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원을 한 것은 은사스님께서 “언제나 이생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는 말씀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고, 살아있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늘 쉬운 길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사회인들이 세속 생활고로 번뇌하듯이 출가 수행자들은 어서 도(道)를 이루어야 하는 조급함이나, 근기와는 달리 도에 대한 욕심 등이 번뇌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로 보는 그 순간 또 항상 마음속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염을 하면 번뇌는 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자리 참모습입니다. 심지어 해서 특이하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만나러 오는 것도 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하고 움직이고 조용히 있는 것 등 모든 행위가 바로 선이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대단히 기막힌 인연공덕의 결과입니다. 물론 인생이 풀잎끝에 맺힌 이슬처럼 허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몸을 받은 것은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난 사람인연을 허망하게 써버릴 것이 아니라 자기 참모습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참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생사의 절대 모순에 대해 깊이 의심해 들어가서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는 평정의 상태가 돼서 마침내 생사가 없는 자기 참 모습에서 자유자재

속되는 밝은 지혜와 자아 속에서 이를 판단하고 일을 추진해 감으로써 자연히 부처님자리를 밝히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야 내가 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인양 살다보면 목구멍에 풀칠하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또 “다음 생에 여짜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천만의 소리예요. 다음 생을 무엇으로 보장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내가 실사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몸을 받은 금생에 반드시 부처님 마음자리를 깨달아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을 확실히 알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을 세우고 또 간절하게 하다가 보면 반드시 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중대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이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입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활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x 45cm
◎ 보급가 : ₩ 306,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안내
◇위치 : 충북 옥천군 군북면(故 옥영수여사 생가 뒷산)
◇대지에서 15분거리
◇대지 : 180평 ◇건물 : 30평 2동
▶ 총면적 1천평
◇양도가 : 1억 3천 정도(절충가능)
※ 전세도 가능
042)283-0990/011)426-2534 강대업합창
※ 특정 경향선사 주석도량으로 일러짐
사찰 설립하실 분
◇위치 : 진주시내 산외
◇법당 약 45평, 방 4칸, 입식부엌, 욕실 및 화장실 2개, 기쁨보일러 급난도 신축
◇전세금 : 4천만원
0591)746-7350/017)552-7350
김강철
사찰 매매
◇위치 : 충남 목천 국립기념관 뒤편에 위치
◇지상건물 35평 및 시설물 일체
◇법당 : 12평, 요사 30평.
◇가액 : 2,700만원
◇특징 : 저수지, 주차장, 반
0417)567-9240
사찰운영하실분 (무상기증)
◇위치 : 경주시 / 면적 : 林 1435평
가액 : 무상기증(용자 약간 有)
건물 : 법당 11평/요사 : 15평(조립식)
◇위치 : 김해시/부지: 田+塋 1,300坪
법당 : 20평/요사 : 24평
조건 : 노보살님하고 공동 봉사 원함.
◇위치 : 양산시 원동면/부지: 田+塋 800坪
법당 : 21평(한옥)/요사 : 25평(토담집)
◇조건 : 87세 노보살님 생전 및 사후 평생봉양.
◎ 각 사찰 공히 부처님 전법도량으로써 신비와 무속인, 일반인, 보살 및 투기성이 짙은 상가라는 절대 시정합니다.
◎ 전국 사찰 포교원, 사찰상 영도하실 스님이나 인수보살 스님은 부담없이 마시고 즉시 연락바랍니다.
21세기 불교문화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범사할장
서울본사 : 02)512-4447/011)736-4447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고양시도시농업행성-화정지구
- 법당, 사무실, 방 2, 주방, 욕실
◇ 고급시설, 문화재 목조 아미타불
◇ 가격 : 2천만, 월 50만 (관리비 무(無), 시설비 - 1천 3백만원)
0344)979-0212
011)667-0212